<11-1> 비이성적이고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서 수많은 인간 본능, 본성이 있다.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 –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시작은 시인이자 정신분석학자였던 앙드레 부르통 1924년에 1차 선언 했을때는 문학에서 굉장히 열렬하게 문학가 미술가 함께 모여서 했었는데. 무의식의 세계를 파헤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는 좀 한계가 있음. 그래서 미술에서 더 크게 발전하게 됨. 꿈.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

**꿈**: 프로이트는 1900년 이전에 발견한 메커니즘으로 필히 유년기와 연결된다. 재현력(representability), 전치(displacement), 압축(condensation), 상징화(symbolization)의 네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이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프로이트** – 미술작품은 무의식 속의 비밀스러움을 표현하는 것.

**라캉** –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작품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이성적이고 무의식적 욕망이 내재되어있다.

22) 살바도르 달리, <기억의 고집> 1931 // 달리가 살던 곳 : 항구. 왜 시계는 흐물흐물 거리지? 굉장히 낯설어짐. 시계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관습적으로 보고 있는 것. 이 흐물흐물 거리는 것 때문에 낯설게 느껴짐. 낯선 시각으로 보면서 불안 공포가 엄습. 이 넓은 광활한 수평선. 이 작품을 볼 때 오히려 광활 황량하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면서 불안이 느껴짐. 달리는 실제로 어린 유년 시기를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아버지가 굉장히 금욕적이고 엄격. 그래서 아버지 교육에 대한 반발로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했다.

23) 살바도르 달리, <윌리엄 텔의 노년>, 1931 / 살바도르 달리 <윌리엄 텔의 수수께끼>, 1933 //

윌리엄 텔 연작. 윌리엄 텔은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한 사람. 권위적 자기 중심적, 강압적 인물. 그런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유년시기를 표현. 아버지의 살해를 꿈꾸거나 증오하는 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시작.

도2) 크레모니니 <나의 사랑스런 어머니에게> 1972-1973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표현. 남근을 보내면서 나의 사랑하는 엄마에게 되어있다. 아이는 지금 감옥에 갖혀있는 듯 해 보임.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프로이트에 의하면 생물학적으로 규명된 정신적인 구조라고 생각했다. 항문기(3세)에서 시작하여 남근기가 끝날 무렵 해소된다.(5-6세)

**적극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남아는 3세에서 5세 사이에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어 아버지의 제거를 꿈꾼다. 어머니를 소유한 아버지를 질투하고 또한 아버지의 보복을 두려워한다. 아버지의 보복은 거세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거세 콤플렉스가 형성된다. 🡪성정체성 확립(이성애자)

+결핍, 부재 등 불안 느낌 (이 시기에 성립)

**소극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어머니를 타자로 느끼다가) 이 시기에 남아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고 싶어한다. 🡪성정체성 확립(동성애자)

프로이트의 성심리학 발달 단계 –

구강기(oral stage) – 입의 성적 쾌감

항문기(anal stage) – 유아는 싫어하는 것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남근기(phallic stage) – 여아와 남아 모두 남성기에 관심을 갖고 거세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남아의 경우), 거세당했다는 느낌(여아의 경우)을 갖는다.

생식기(gential stage) – 약 5세부터 사춘기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된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생식의 임무를 수행한다.

도1) 살바도르 달리, <윌리엄 텔의 노년>, 1931 / 살바도르 달리 <윌리엄 텔의 수수께끼>, 1933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아버지는 그런 반항하는 아들 못마땅. 아버지는 공무원. 아들을 좋아하지 않음. 항상 아버지에 대한 복수.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 아버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억압을 달리가 갖고 있었고, 이 것을 그림에 표현.

3) 도나텔로 <다윗> 1434 / 4) 미켈란 젤로 <다비드> 16세기 / 5) 베르니니 <다비드> 17세기 //

모두 다윗(다비드)으로 동일. 성경에 나오는 얘기.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 나라에 골리앗이 공격을 하니까 사울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에게 부마로 삼겠다 얘기. 미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무찌름. 성경 관점에서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정신분석한 관점에서 다윗의 생부 이세와 국왕이였던 사울. 적의 장군이였던 골리앗. 모두 아버지상. 무의식적으로 같은 인물.

이세 – 아들을 통해서 신분상승을 꿈꾸는.. 출세욕

골리앗 - 거세를 두려워하는 아들로부터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상. 실패, 거세.

사울 – 사위 삼고자 함... 적극적 아버지상. 아들을 출세시키고자 하는..?

다윗을 다 다르게 표현. 작가의 무의식적 심리를 다윗상에서 볼 수 있다.

1은 너무 여성적. 용감과 거리가 멀다. 발가락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만지작거림. 에로틱하다. 승자와 패자간의 에로틱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도나텔로는 실제로 동성애자. 아버지와의 에로틱한 관계.

프로이드는 미술작품을 통해서 무의식, 그 비밀스러움을 읽을 수 있다. 작가의 무의식이 보인다.

2는 아름다운 육체 보여줌. 부친살해를 주저한다. 작가는 자신과 다비드상을 동일시했다. 아버지의 살해를 주저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함. 실제로 미켈란젤로의 아버지가 이 작품 안 좋아하며, 미켈란젤로는 양성애자. 성격이 우유부단하면서 뭐든지 주저주저했다고 함.

3은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임.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는 건장한 남자상. 베르니니 자신도 이런 성격. 아버지와의 관계도 굉장히 우호적. 베르니니 아버지도 조각가였으며, 아들을 출세시키려 노력했으며, 아들에 헌신. 베르니니는 항상 긍정적이고 자신감. 아버지에 대해 좋은 기억 가지고 있었다고 함.

이성적으로 분석(비례, 매끈함 등)하면 1,2는 르네상스의 최고의 걸작품. 3은 바로크 미술의 걸작품. 작가의 무의식, 성적인 취향 등이 작품에 그와 같은 미술가의 심리가 들어가 있다.

6) 카라바치오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1605-10 //

37의 나이로 죽음. 르네상스를 끝을 내고, 바로크 미술의 문을 연 사람. 사생아로 태어나 정말 장판, 길거리에서 떠돌며 살다가 화가가 됨. 사람을 살해하게 됨. 그래서 쫓겨 다니다가 죽게 됨. 그림을 그리는 조수 있었음. 창녀를 모델로 세우고 그림을 그림. 어느 날, 창녀가 풀장에 시체로 발견. 그 당시 경찰이 조사하니 조수를 범인으로 지목. 조수가 카라바치오에게 결백을 주장. 조수의 말을 믿고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씀(조수의 결백, 선처 요구). 조수 풀림. 카라바치오 기뻐서 좋아함. 조수가 나는 너를 죽였다. 라고 얘기함. 창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라 함. 그 자리에서 카르바치오가 조수 죽임.

바로 골리앗의 얼굴이 카르바치오의 자화상. 너무 처참하고 슬프게 보임. 좌절과 절망. 어느 것 하나도 성취하지 못한 자신을 골리앗에 비유.

다윗이 만약 카르바치오라면 아버지(자신을 버림 사람)와의 갈등을 보여줌. 아버지에 대한 살해, 죽음… 역시 골리앗도 자신의 자화상이 됨.

부모와 자신간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된다..

7) 카라바치오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1605-10 / 렘브란트 <자화상> 1665 //

사람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전이대상을 만든다. (EX 아이가 유난히 젖꼭지나 인형 좋아함. 뺏으면 욺.. )

카라바치오는 골리앗으로 자화상.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 유난히 자화상 많이 그리는 경우는,자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 그 자아가 나와 과연 동일시한가? 자아 속에는 타자가 들어간다. 무의식적 심리가 있다. 자신을 하나의 타자로서 표현. 거울과 본인 자아가 완전히 동일한가? 그와 같은 화가들의 심리.. 바로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자아를 드러낸다.

8) 브랑쿠시, <공간의 새> 1940 //

정신분석하자 왈, 굉장히 성취욕이 강하고 아주 자신만만한.. 성취욕망(출세욕망)이 대단하다. 이 새는 금속으로 되어있고, 하늘을 치고 올라가서 태양(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권위)으로 올라가는(태양과 맞서고 싶은 심리 드러냄) 새의 상징적 모습을 추상으로 표현. 새를 재현 X, 일종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추상화시켰다. 태양(브랑쿠시 아버지). 아버지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 일종의 출세욕망과 유사.

9) 르네 마그리트 <이미지의 반역> 1928 // 이 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남근의 당당함의 자신감의 전이대상이다.

10) 뒤샹, <L.H.O.O.Q> 1919 / 레오나르도 다빈치 // 프로이드 – 레오나르드 다빈치 유년의 기억이란 논문 씀. 여기서 모나리자에 대해서도 씀. 프로이드의 분석에 의하면 온화, 부드러움. 미소. 그러나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 갖게 됨. 매혹적 매력적. 성적 결합을 거부하는 듯한 거리감. 포근한, 온화함(어머니에 대한 성적욕망). 어머니에 대한 성적욕망은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 나타난다.

다빈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 엄마하고 살았다. 단둘이 살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과정 겪지 않았다. 엄마와 자신 동일시하며 동성애자 됨. 실제로 다빈치가 동성애자. 어린시절에 형성된 것이 미술작품에 나타났다.

11) 레오나르도 다빈치 <성 안나와 세례자 성 요한과 함께 있는 성 모자> 1505-1507 / 레오나르도 다빈치 <성 안나와 성 모자> 1510 // 성 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엄마. 성 안나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잘 없음. 그러나 다빈치가 두 여자를 유달리 많이 표현한 것은 다빈치는 계모와 사이가 좋았다. 친모와 계모 그와 같은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작품에 표현.

**라캉(Jacques Lacan, 1901~1981)**

**라캉-인간 성장의 세 가지 단계**

**1) 상상계(Imaginary), 2) 상징계(Symbolic), 2) 실재계(Real)**

**거울단계(Stade du miroir) – 상상계에서 나타난다. 이 현상은 자아의 근원이 된다.** 6-18개월 사이에 유아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다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로 진입할 무렵, 어머니와 자신을 소외시키게 된다.

라캉 – 오이디푸스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거세 공포는 결핍 혹은 부재의 결과이다.

**미술작품의 감상은 관람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므로, 시작적 경험은 늘 상실과 소외와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금기. 어머니의 곁에는 아버지 있다. 아버지는 법. 아버지는 금기를 가르치며,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자라서 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을 잘 못 느끼게 됨.)

12) 크레모니니, <매일의 서랍> 1977-1978 / 크레모니니 <유기체화된 감성> 1965-1966 //

라캉의 이론으로 작품을 한 사람.

((매일의 서랍)) 관음하는 시선 – 불법.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충족될 수 없는 욕망, 타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죄를 수반.

두 개의 캔버스로 연결. 이 선은 금지된 선. 금지된 선을 넘어서 아이는 이 도구를 잡으려고 함.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으면서 죄의식을 느낀다. 남의 것을 넘보면 안 된다는 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창에서 아버지의 상이 보인다.

((유기체화된 감성)) 남의 정육점에 있는 고기 만지면 안돼.

24) 달리 <나르시스의 반응> 1937 // 라캉 만남. ((25) 카라바조 <나르시스>))의 그림에 영감 받고 그림. 죽음을 의미 – 수선화. 연금술이 적용. 죽어서 일종의 수선화가 된다.(연금술적 내용). 바로 이 수선화는 달리의 애인이였던 갈라. 달리는 갈라를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 단순히 부인이 아닌, 달리와 갈라는 하나의 인격체로 융합이 된.. 그런 것으로 받아들임. 즉, 갈라를 타자가 아닌 자신의 자아로서 인식. 나의 나르시스. 나의 갈라.. 이런 시도 씀..;;

26) 살바도르 달리, <황혼 무렵의 격세유전> 1933-34 / 밀레 <삼종기도> 19세기 // 달리는 밀레의 삼종기도에 굉장한 편집증을 보임. 여기 죽은 아이의 시체가 있다고 주장함.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달리의 작품에서 아버지의 살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공포.. 밀레의 만종에서 표현되었다.

28) 살바도르 달리, <성 요하네스의 십자가> 1951 / 살바도르 달리 <십자가 책형> 1954 //

엄숙, 경건. .. 십자가에 못박히는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

달리는 고전주의로 복귀. 초현실주의적인 환상과 접목시킴.

노란색은 서양에서 배반의 상징. 노란색은 유다다.. 서양예술에서 유다와 예수 대면시키는 경우 없었다. 옛날에 유다 그리는 것 금지시켰기 때문. 굉장히 정적, 엄숙, 경건한 느낌 준다.

29) 살바도르 달리 <최후의 만찬> 1955 / 모두가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려오고 있다. 혼자서 노란색 옷 입은 것은 유다. 경건, 엄숙.

고전주의로 복귀하면서도 환상을 결합시키고 있다. 어렸을 때 형이 죽고 자신이 태어나면서 살바도르(형의 이름)라는 이름 붙여줌. 여기서 굉장한 억압 느낌. 달리의 어머니는 너의 형은 십자가로 귀의했다. 달리는 이 말을 듣기가 싫고, 자신한테는 죽은 형의 영혼이 씌여져 있다고 생각.

30) <도시위에서> 샤갈 1914-1918 // 아름답고, 감미롭고, 행복한.. 샤갈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어린시절에 유대인 마을에 대한 기억 같은 것 그림.

31) <solitude> 1933 샤갈 // 1887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남. 18살 쯤에, 파리로 오게 됨. 야수주의 입체주의 등의 영향 받게 됨. 그런데 항상 주제는 어린시절의 추억들.

무의식적 심리 – 달리는 억압, 강압.. 샤갈은 감미로운 추억.